



코소보 이혼도 광혜진 찬송 찬희 찬미 찬서

선교사 선교소식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사랑하는 동역자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지난여름 저희 가정은 한국에서 10년 만에 열린 KPM(고신총회세계선교회) 선교대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사역지인 코소보로 복귀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사역하는 동료 선교사님들과 또 한국의 교회와 성도님들과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교제하며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은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요 한 몸된 지체며 함께 하나님 나라의 귀한 선교를 감당하고 있음을 고백하며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전 세계에서 함께 모여 선교대회를 하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큰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사역지인 코소보로 돌아와 일상으로 복귀하면서, 대회에서 받았던 도전과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사 가정이 되고 싶습니다. 한 알의 밀알처럼 이 땅에 심어져 열매 맺는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큰 사역이나 열매는 없지만 저희들의 삶과 사역이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어떤 모양으로 현지 교회를 섬기고 또 현지인들을 섬길지 모르겠지만 저희 가정의 모든 삶을 통해 원하는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거름이 되어도 좋고 또 다른 도구가 되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 역사 속에 한 부분이라도 저희 가정이 미약하게나마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가정이 이 땅에서 잘 지낼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1. 한국어 센터

여전히 저희 가정은 계속해서 한국어 센터를 이어갈 수 있는 공간을 찾고 있습니다. 최근 프리슈티나 지역의 임대료와 환율이 동시에 오르면서 장소를 마련하는 일이 더욱 쉽지 않아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게 가장 좋은 장소를 주실줄 믿습니다. 얼마전 뜻밖의 제안도 있었습니다. 한국어 수업을 통해 교재하고 늘 저희 가정을 도와주는 친구 사라가 어머니의 소유 건물 1층이 비어 있으니 한번 보러 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직 비어있는 장소의 주변 길이 비포장 도로라는 이야기만 들은 상황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조건이 정해진 것은 없지만, 저희가 큰 재정을 부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이야기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조만간 방문하여 살펴볼 계획인데,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위해서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마 전 프리슈티나 대학에 한국어 센터에 나오는 직장인 발러즈와 함께 방문했습니다. 학교 관계자를 만났고 추후에 연락을 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돌아왔습니다. 감사하게도 학교에서 연락을 받았고 조만간 프리슈티나 대학교 총장님과 또 담당부서 교수님들과 한번 만나기로 했습니다. 또 오스트리아 대사관에(코소보 담당) 연락을 해서 관련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도 문의했습니다. 한국문화원을 소개시켜 줬고 담당부서 직원과도 통화를 했고 관련하여 도움을 주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장 광혜진 선교사가 어떤 일들을 학교에서 할 수 없더라도 이런 모든 일들이 밑거름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 이후에도 프리

슈티나 대학에서 한국어 과정이 열리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들이 열리길 소망합니다. 저희 가정이 이 일에 좋은 밑거름이 되길 원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할 수 있는대로 접촉하고 진행해볼 계획입니다. 위해서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가정교회(프리슈티나 장로교회)

저희 가정은 계속해서 매 주 가정교회로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언어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주 예배드리러 나오는 가정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아직 서툰데 그럼에도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친구의 가정에 감사합니다. 이 가정에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이 가정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믿고 주님의 길을 따르길 소망합니다. 악의 길에서 떠나 말씀의 길에 서길 원합니다. 악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며 말씀 위에 굳게 서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한국어 센터에서 만나 교제하는 친구들이 가정교회에 참여해 함께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프리슈티나 장로교회(가정교회)를 통해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성장 할 수 있도록 또 이 교회를 통해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KPM 선교대회 참석

저희 가정은 6월5일부터 한국에 약 한달 간 선교대회를 위해 머물 계획이었습니다. KPM고신총회세계 선교회에서 저희 부부는 찬양팀 싱어로 섬겼습니다. 3박4일의 짧은 일정 속에서 찬양팀으로 섬기는 것은 기쁨이었습니다. 선교대회 기간 중 후원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님들도 뵈고 교제하는 복된 시간도 누렸습니다. 부족한 선교사들을 위해 마음으로 또 물질로 섬겨주신 교회와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KPM 고신총회 선교대회가 마친 후 노회 선교대회가 있었습니다. 저희 가정은 부산노회로 배정받아 부산 노회에서 열리는 선교대회에 참석했습니다. 부산노회에서는 토크쇼, 선물증정(선교사가 준비한)등 선교사들과 함께 유익한 시간들을 보내며 다시한번 선교에 대한 마음을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노회 선교대회가 마친 후 천안에서 마지막 선교사들만 모이는 선교사대회가 있었습니다. 은혜로운 말씀과 찬양, 그리고 동료선교사님들과 또 몇 년 만에 만나는 동기 선교사님들, 그리고 선후배 선교사님들이 함께 모여 교제하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귀한 쉼과 회복의 시간을 누리는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가정은 선교대회를 마치고 코소보로 복귀하기 전 마지막으로 그동안 이상이 있던 막내 찬서의 눈검사와(코소보에서 한 검사에서는 이상이 없음) 건강검진을 했습니다. 막내 찬서의 눈은 코소보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지만 한국에서 검사결과 빨리 수술을 해야 한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시력에도 문제가 생겨서 급하게 수술 결정을 하고 "사시" 수술을 복음병원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혼도 선교사도 건강검진에서 담낭에 돌과 염증 용종이 있어서 급하게 담낭제거 수술을 했습니다. (1-2년 전에 코소보에서 복통이 심해 위경련인줄 알고 응급실에 간적이 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담낭의 문제였던 거 같습니다.) 저희 가정은 수술과 회복을 위해 1개월 더 한국에 머물고 코소보로 잘 복귀했습니다. 앞으로 찬서와 이혼도 선교사가 후유증 없이 잘 회복하고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산노회 선교대회 참석 중



▲ KPM 선교대회 참석 중



▲ 이찬서 수술 전



▲ 이훈도 선교사 수술 후



▲ 가정교회 예배 중

▲ 최근 가족사진

2. 기도제목

1. 가족의 영육간 건강을 위해서
2. 언어에 진보가 있게 하소서(알바니아어, 영어)
3. 앞으로의 사역과 좋은 동역자(친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4. 한국어센터 사역을 위해서(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5. 코소보 무슬림 선교 사역을 통해 가정에 은혜와 감사가 넘쳐나게 하소서
6. 아이들이 어려움 없이 학교에 잘 다닐 수 있도록, 만남의 복 주시도록
7. 네 명의 아이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8. 프리슈티타 대학교 한국어 사역이 열리도록
9. 발러즈, 사라다, 페스티나 우라타, 키크가정 에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 힘을 주시도록
10. 가정교회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연락처

카카오톡ID gokosovo

전자우편 hundo810@hanmail.net